

무학대사가 꽃은 지팡이에서 자란 배롱나무



지정번호 영동-13
지정년도 1994
관리기관 영동
수령 525년
수고 8m, 7m
흉고둘레 1.5m, 1.2m



충북 영동군 황간면
백화산로 652
36° 15' 50.22" N
127° 54' 32.32" E



반야사의 명물인 보호수(영동-13) 배롱나무는 2그루가 극락전 앞의 3층석탑을 배경으로 양옆으로 나란히 서 있다. 배롱나무의 나이는 525년으로 추정된다. 큰 것(정면에서 왼쪽)의 나무높이는 8m, 밑동둘레는 150cm 가량이다. 작은 것의 나무높이는 7m, 밑동둘레는 120cm 정도이다. 큰것은 원줄기 1m 높이에서 가지가 5갈래로 갈라졌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무학대사와 관련이 있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전후에 무학대사를 국사로 임명하여 곁에 두고 주요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자문을 구하였다. 이성계와 무학대사는 간혹 도읍지를 정할 때 함께 다니기도 하였으며, 도읍지 조성 현장을 같이 다니기도 하였다. 어느 날 무학대사가 이성계의 명을 받고 지방을 시찰하던 중 우매리를 지나다가 반야사에 들린 적이 있다. 이때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 두었는데, 그 지팡이가 2개로 쪼개지면서 배롱나무로 자라났다. 한편 반야사는 세조와 문수보살에 얽힌 설화가 있다. 언젠가 몸이 불편한 세조가 반야사를 중창한 후 회향법회를 열어 여러 보살들께 공양을 올렸다. 그랬더니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홀연히 나타나 영천으로 인도하여 목욕할 것을 권하였다. 그리고 문수보살은 불심이 가혹하여 부처님의 자비가 따른다는 말을 남기고 사자를 타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 후로 세조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아갔다. 절의 이름을 반야사라 한 것도 문수보살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